



## 한국 최초로 건설된 서울지하철건설의 주역이자 정치인이셨던 김명년 고문

- 방문일시 : 2010년 12월 24일 11:00분
- 장 소 : 한국기술사회 회장실
- 대 담 : 한국기술사회 김명년 고문, 김규린(토목시공), 이 선(도로및공항) 홍보위원, 구수연 편집담당

한국기술사회 제17대(1998.02.27~2001.02.28) 회장으로 있으셨던 김명년 고문님은 철도기술사로서 일생동안 철도 사업에 헌신한 분이시다. 균형이 있는 몸매와 편안하고 친근감 넘치는 첫인상은 고향인 유서깊은 안동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6.25 참전용사를 거치며 서울공대 4학년때인 1950년도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고 1964년도 제1회 기술사 합격자 중에서 32세에 합격한 최연소 철도기술사로서 1957년 서울공대를 나와 철도기술인으로서 한국 최초의 서울지하철 건설의 주역이다. 철도청을 거친 후 1970년 서울지하철 건설본부장을 지니셨고 1978년 서울특별시 제2부시장, 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사장, 1988년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1997년 자민련 강남갑지구당위원장을 역임하셨다.

**Q** 1992년 기술사법이 부활된 이후에 개정예 힘스 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1992년 11월 기술사법이 부활제정(법률 제4500 호) 시킨 것은 13, 14대 회장이셨던 김규태 고문이

셨지요. 김규태 고문의 서거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 특집」에 게재하지 못한 것은 아쉽군요. 제가 재임시 부활제정 이후에 내용을 추가 및 보완을 위하여 기술사법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종합하였습니다. 일 본기술사법을 참고하기도 했지요. 1998년 10월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고도과학기술사회를 위한 기술사법 개정법안 공청회를 열기도 했지요. 그 결과 2000년 10월 11일 과학기술부공고 제2000-63호로 입법예고 되었고 다음 회장 임기 중에 공포되었습니다.

**Q** 재임 시에 제1기 CMP 수료자를 배출하셨다면요?

건설사업관리전문가(CMP)를 배출시킬 수 있게끔 이 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1998년 5월 18일에는 제1기 CMP과정 입교식이 있었고, 2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인 6월 18일에 CM교육원 헌판식을 열었지요. 가슴 뿌듯했던 순간이었지요. 현재 73기에 이르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 제1기 및 제2기 CM전문가 과정 수료식

**Q** 재임 시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사회 회장 선거가 17대부터 직선제가 되었고 19대에 대의원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선제로서는 제가 최초로 치러졌을 때에 당선된 회장이었지요. 재임 시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재임 시기가 1998년에서 2000년도까지였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IMF시기였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는 외환 부족으로 구제금융 협약을 했을 때이지요. 금융위기 당시에 주가도 600선 전후, 환율도 1불당 지금보다도 높은 2,000

원을 넘기기도 했어요. IMF금융위기 직후 사무국 직원도 적은 상태였지요. 저는 결단을 내려 과학기술부 국장출신을 사무국에 모셔와 정부부처와의 협력에 있어서 유연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기술사법이 노동부 소관으로 되어있던 것을 다시 개정안을 내서 과학기술부로 오게끔 만드는 작업을 해 오늘날의 제도로 변경되는 모태를 마련하였습니다.

**Q** 재임기간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28회 한·일기술사 합동심포지엄(1998년)은 일본의 치바(千葉)에서 개최되었지요. 그 때 열심히 토론하던 양국기술사들의 열의, 만찬 시 가족들의 합창, 술동이를 깨서 대환영했던 日本酒행사와 일본기술사들의 송별시의 따뜻한 情誼가 새롭게 생각납니다. 마쓰다이라(松平)씨, 혼마(本間), 나까야마(中山), 미야하라(宮原)씨 등 여러 분들이 열성적이었습니다. 제29회 한·일기술사심포지엄(1999년)은 「동북아시아의 미래 상(꿈)」이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하였는데 에너지 자원개발, 환경, 관광, 교통망건설 등 각 분야별로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성대하고 화기애애한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상희 의원(한나라당), 노무현 의원(국민회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부인을 동



▲ 故 노무현 前 국회의원(16대 대통령)의 축사

반한 양국기술사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만찬회에서 한·일 양측부인들이「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안상영시장과 함께 처음 부르게 되었지요. 그 때 이후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통화 되다시피 했고 요즘 얘기하는 한류(韓流)의 시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때 일본 분들이 무척 좋아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당시 노무현 의원은 한·일 양국의 기술사들이 두 나라 관계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는 요지의 축하메시지를 전해 주셨지요.

**Q** 끝으로 기술사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프로엔지니어인 기술사로서 활약하려면 윤리교육과 신기술, 신지식의 함양을 지속하면서 신뢰받는 인격자가 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모범기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正直, 正當, 正確의 3正 理念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저는 일에 대한 근면성과 정성과 땀으로 오랫동안 모진세월을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강인한 의지와 얼을 '일·땀'이라는 합성어로 기술하고 또한 우리 조상들은 농사때를 지키고 조상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겼는데 이 같은 행동철학을 나는 '적의·실천'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일·땀의 정성을 다하는 수고와 '적의·실천'하는 기술전문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술사는 공인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 안에 한 조직원이 아닌 책임자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송조·화목·보국 이 세 가지의 인생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1961년도인 제 나이 29세 당시 석탄개발 수송을 위한 황지선(백산~황지)철도공사 사무소장 재

임시 어려운 공사를 수행하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솟아났지요. 그 때 제가 崇祖, 和睦, 報國이라는 좌우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송조는 대한민국을 발굴하자는 뜻이고, 화목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와 협약으로 실행하는 것이지요. 보국은 아시다시피 나라에 꼭 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술사 여러분은 정부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사 윤리강령을 항상 명심하며 일하기를 당부합니다. "송조·화목·보국"이라는 저의 좌우명을 참고했으면 하는 바램이지요. 미래에 대한 공부는 기술적으로 개발시키고, 일꾼이 되게끔 정신, 육체건강 또한 지켜야 합니다.

변화의 가속도는 빠르게 제품과 기술시장의 사이클은 빠르게 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이나 우리 기술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기술혁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지면을 빌어 우리 후배 기술사의 분발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 김명년 교문과 김규린(좌)·이 선우) 기술사